

## 문학은 의학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sup>1</sup>,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sup>2</sup>

이 영 미<sup>1</sup> · 이 영 희<sup>2</sup>

### How Can Literature Contribute to Medical Education?

Young Mee Lee, MD, MSED, PhD<sup>1</sup>, Young Hee Rhee, PhD<sup>2</sup>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sup>1</sup>,  
Department of English & African Dram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sup>2</sup>*

#### 서 론

현대 의학은 근대적 과학관의 기초가 된 환원주의(reductionism)에 기초한다. 오늘날 의과학은 질병을 국소주의와 환원주의로 대체하여 의학의 발전은 인체의 미세구조의 탐구와 더 나아가 분자단위의 생화학적 변화의 추적으로 나타난다. 질병에 대해서도 세포병리학적으로 분해하여 질병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분자수준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생의학적 모형에 기반한 의학은 질병을 국소적으로 환원시켜 질병과 치료의 개념에서 전인적인 환자-의사 관계를 왜곡하고, 현대에서 중시하는 역동적인 건강(dynamic health)의 개념과 맞지 않아 사회·환경적 요소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의학의 지나친 전문화는 관료화 과정을 거쳐 일상생활을 의료화(medicalization)하고 사회적·문화적 의원성 질병(iatrogenic diseases)을 야기시킨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각종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따른 의료비의 급등과 사회부담의 증가 등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요구에 따라 선진 외국의 경우 의료 인문사회과학적 과목들이 의과대학에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즉, 의사학, 의료윤리, 의료사회학, 의학철학, 의료인류학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는 ‘환자와 의사’, ‘의사와 사회’, ‘의사되기(Doctoring)’과 같은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면서도 새로운 의학모형이 출현하여 생의학적 지식과 균형 있는 의학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십여 년 동안 많은 의과대학에서 의료 인문 사회과학 과목이 필수과정 혹은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개설 교육되고 있다.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지만, 의료의 또 다른 실제의 모습이기도 한 인문사회학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앞서 기술한 사회학, 철학, 윤리학, 의사학 등과 더불어 ‘의학과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출현시켰다. 문학은 학부 의학교육에서 임상 의사들의 진료에 이르기까지 의료의 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할

교신저자: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Tel: 02)920-6098 / 6180, Fax: 02)928-1647  
E-mail: ymleehj@korea.ac.kr

문학은 의학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환자중심 진료로의 복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사 배양이 강조되었고 ‘문학과 의학’이라는 교육과정은 의사들에게 의료에 있어 인문 예술학적 측면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시키고 의학이 개개인의 환자로부터 동떨어져 기술과 생물 의학적 측면에만 치중하는 것의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문학과 의학’이 교육과정으로 도입된 이후 이는 문학의 한 장르로서 그리고 동시에 의학교육의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과 의학’의 관계, 국내외 사례를 설명하고 문학이 의학교육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 본 론

### 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로서 의학과 문학

오랫동안 문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인문예술장르로서, 의학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신체 즉, 과학적 사실을 연구하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문학과 의학은 다루는 분야뿐만 아니라 접근방법 역시 상이하기에 공통점이 없다고 여겨져 왔으나 실상 이 두 분야만큼 밀접한 공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흔치 않다. 의학과 문학은 모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humanistic arts)’이라는 철학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기 때문이다. 의학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연구를, 문학은 인간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Shapiro, 2001).

문학과 의학은 인간과 사회의 ‘고통’에서 출발하여 그 ‘치유’를 목표로 한다. 문학이 개인과 사회가 앓고 있는 병리적 현상에 깊이 천착하여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배후와 그 기저에 내재된 원인을 찾아 보고자 한다면, 의학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주변인들, 더 나아가서는 의료체계 등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상황을 접하고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실상 문학은 의학과 매우 오랜 세월동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윌리엄 오슬러는 의과대학 과정 중 의사가 될 모든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대작들에서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예술적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였고 의사이면서 작가였던 안톤 체홉, 키이츠 등은 문학과 의학의 공통적 관심과 방법을 접목시켜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Charon, 2000).

의료의 지나친 기계화, 도식화에 대한 반발로서 1970년대 북미지역에서 초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으로서의 의학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문학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목을 가진 의학교육자와 인문학자들에 의해 문학은 의학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드라마, 소설, 미술로 표현된 건강과 질병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다루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30년전 문학이 의학교육에 도입된 이래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1998년 미국 학장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74%에서 의과대학에서 “문학과 의학”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중 39%는 정규 교육과정이었다 (Charon, 2000).

과거 수 천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료는 인간을 다루는 학문으로 존재하였고 단지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이르러 응용과학 분야로서 강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원은 의료업의 본질을 찾으려 하는 노력으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나. 문학은 의학도와 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의학과 문학’ 과정이 의학교육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의료인으로서 전문성 개발과 습득에 있어 문학이나 예술이 ‘강력한 학습도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Calman, 1997; Downie et al, 1997; Sweeny, 1998). 문학은 의학도들에게 여지껏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앞으로도 결코 직접 접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진료 상황에 대한 간접 경험을 가능케 한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얻는 경험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의사에게 있어 환자는 단순한 자신의 일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의사의 입장이 아닌 문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작품들은 일상의 눈으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 질병에 따른 인간의 고통과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즉, 문학은 질병을 경험하는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문학은 환자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의술과 삶을 성찰하게 함으로서 임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문학 속에 그려진 다양한 의사들의 모습, 의사와 환자 관계, 일반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람직한 의사의 모습 등을 통하여 의사들 자신에 대한 반성적 지식을 갖게 한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시각들이 의사와 질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회의 의사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Charon은 문학이 의학교육과 진료에 줄 수 있는 영향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Charon, 1995). 첫째, 문학작품 속에 표현된 질병과 그 경험을 읽으면서 의사들은 아픈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의사들이 실제 환자의 이야기에든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서 좋은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하고 결국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사출신 또는 비 의료인 출신의 문학가들이 표현한 의사들의 일상과 바람을 읽으면서 의사의 책무와 사회적 요구를 인식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능력이 향상됨으로서 환자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뿐 아니라, 의사의 자아 인식(self-knowledge)과 성찰을 가능케 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실제 진료상황에서 환자의 가치와 신념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해석력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어 일상의 의무기록작성 뿐 아니라 의학논문이나 저서 등을 더욱 명료하

게 작성하고 의학전문서적도 더욱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즉, 의학과 의사들은 ‘문학과 의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위의 다섯 가지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임상적 접근과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 문학과 의학교육

문학과 의학과정은 의학 교육의 전 단계에 걸쳐 시행될 수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교육의 목적이 다르다(Charon, 2000).

의예과 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이 시행될 경우 의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학과 인문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문학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질병과 상실의 문제에 대하여 접하게 되고 의료와 관련된 내러티브 기술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학생들을 의료라는 문화에 좀 더 가까워지게 하고 초기 임상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예비 의학도들에게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예과 과정에서 문학을 도입한 예는 미국 아칸사스 대학의 “작품을 통한 질환과 치유”과정이 있는데, 의과대학 교수와 영문학과 교수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직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전인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시기에는 의료인문학 세미나, 임상의학입문, 의사되기(Doctoring)와 같은 과정에 통합적으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암이나 에이즈 같은 불치병, 죽음과 임종의 과정, 정신심리학적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룰 때 흔히 문학과 연계되며 의학적인 면담, 의료윤리, 의료인문학 교육에 활용된다. 임상 전 의학교육 기간동안 개설되는 ‘문학과 의학’ 과정의 주요 학습목표는 의학교육 전반에 걸쳐 접하게 되는 의과학의 환원주의적 사고와 질환에 대한 개별 환자들의 고유한 경험을 균형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이 시기에 문학은 인간과 임상진료 사이의 gap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학생들은 임상 증례와 연관된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하면서 작품

문학은 의학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속에 나타난 환자와 의사에 대한 사실적 묘사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 인간, 세상사 사이의 복잡다단한 관계에 대한 작가의 창조적 능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죽음과 임종에 대한 세미나에서 솔제니친의 암병동을 읽게 하며, 로올라 대학 진단학 과정에서 학생들은 톨스토이의 ‘이완 일리이치의 죽음’을 읽는다.

임상실습교육이나 전공의 과정에서는 일반적 접근에 머물렀던 임상교육 전 단계와는 달리, 실제 진료와 관계하여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며 이때는 주로 윤리적 딜레마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 또한, 최근에는 서술적 기술법(narrative writing)이 교육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기존의 기록과 동시에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적게 하며 이를 ‘parallel chart’라고 한다. 물론, 개인적 감정을 기술한 ‘parallel chart’를 의무기록에 끼워 넣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환자 진료에서 자신이 경험한 성취감 뿐 아니라 분노, 슬픔, 괴로움, 절망감, 죄의식 등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나 전공의, 교수들도 겪는 공통된 것임을 공감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윤리적 시각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중요한 모멘트이다.

기성 의사들이나 교수들은 학생이나 전공의와는 달리 학업의 일환으로서 의무적으로 문학을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폭넓은 장르와 내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실제 임상경험이 풍부함으로 이들에게 있어 문학은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의사들 대상의 문학 세미나 모임을 하는 대학병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달루이 대학의 경우 한달에 한번 의사와 그들이 가족이 함께 모여 문학에 대한 토론을 한다. 콜롬비아-장로교 병원에서는 한달에 두 번씩 교수, 스태프, 학생들이 함께 작품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콜롬비아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nnals of Internal Medicine과 같은 학술지에 의사

들이 자신의 진료에 대한 개인적 성찰을 적기도 한다. 이를 통하여 다른 의사들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 라. 외국의 문학과 의학 교육과정 사례

### 1) 토마스 제퍼슨, 하버드, 뉴욕 의과대학의 문학과 의학

미국에서 의과대학 정규교과과정에 문학교육을 포함시켜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Thomas Jefferson의대와 Harvard 의대를 들 수 있다.

Thomas Jefferson의대의 경우 본과 1~2학년을 대상으로 ‘문학과 의학’ 강좌를 개설하고 영문학 전공교수가 강의, 토론 및 사례분석(case study) 등을 통해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환자, 의사, 질병 및 죽음 등의 주제를 다루고 이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견해를 써오도록 하거나 새로운 희곡작품을 읽은 뒤 5분간의 준비 후 즉석에서 역할극(role playing)을 한다. 문학작품의 범위도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다양한 장르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호스피스(말기환자에 대한 간호) 경험 및 환자와 의사의 직접체험 기술서 등도 강좌의 주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Passow, 2002).

Harvard 의대에서는 의사 및 의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전공 교수가 진행하는 ‘작문과정’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이 강좌의 목표를 살펴보면 의학이 과학화 및 기계화되어 첨단화 될수록 의료행위에 수반된 윤리적 문제들을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 등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과 중요성을 의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글쓰기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글쓰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명한 문학작품에서부터 임상 의사의 수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읽은 후 질병, 건강, 죽음 및 이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해 수필, 회고록, 풍자 등의 형태로 자유로운 글을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확신과 설득력 및 풍부한 감성을 갖게 되어 환자 와 타인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Nicholas & Grant, 1997).

뉴욕 의대를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20여개 대학기관에서는 인터넷 시대에 맞게 시, 소설, 수필, 영화 및 예술일반 등 다양한 문학작품들에 대해 문학, 예술, 의학 데이터베이스(The Literature, Arts and Medicine Database)를 구축하여 해당 문학작품에 대한 의료인문학적 해설 및 주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Database의 편집진을 살펴보면 문학 및 비평을 전공한 인문학자를 주축으로 의대에서 의료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도 의료인문학 교육이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해설 및 주석을 작성,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종사자들이 인터넷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의 접속, 검색을 통해 문학작품 및 해설과 주석 등을 직접 읽어나가는 동안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문학작품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게 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2) 영국: 노팅햄과 옥스퍼드 의과대학 문학수업**

최근 영국에서는 대중이 원하고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의사’에 대한 요구가 논의되면서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는 선택교육과정 (special study module)과 인문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과대학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Special study module에 인문학 과목인 문학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Skelton, 2000).

영국의 노팅햄 대학의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과 마지막 학년의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문학속의 의학’이라는 새로운 수업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한 권 이상의 문학 작품을 자유로이 선택한 후 자신들의 생각을 2000 단어 이내의 리포트로 작성하였다.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들은 담당 교수나 이 수업 담당자와 토론을 거친 후 리포트를 준비하는데 그 내용은 수업의 주요 목표와 연관된 사항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자신들

이 읽은 작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기술과 임상 현장과 연결하여 생각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 진료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환자를 직접 만나는 실습 시기에 이루어진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통한 다양한 간접 경험과 실제 임상경험을 접목시킴으로서 환자 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적절한 진단적 접근법을 개발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자신들의 임상경험을 반추하고 질병이 환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접한 후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Hampshire & Avery, 2001).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2001년부터 special study module의 일환으로 의학과 2학년 학생들에게 문학 수업을 시행하였다. 10년 이상의 문학과 의학을 가르쳐왔던 미국인 의사와 한명의 임상교수와 주축이 되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연극, 시, 단편, 소설 등 다양한 장르와 문화적 상황을 포괄하였다. 수업 방법도 세미나 전에 작품 읽기, 소그룹으로 읽기, 작품의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발표하기, 주제에 대한 2인 1조 토론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수업 후 대다수의 학생들은 환자와 질병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으며 의사소통능력, 발표력, 글쓰기, 윤리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학 수업 경험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업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였고 즐거운 경험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대학 역시 임상교육기간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학적 경험을 통하여 진료와 관련된 지식, 수기, 태도에 있어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Lancaster & Hart & Gardner, 2002).

**마. 국내에서의 문학과 의학 수업; 고려대학 의과대학의 ‘문학과 의학’**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도 최근 인문사회학적 접

문학은 의학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찍이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을 의학에 접목시킨 세미나를 시행한 의과대학이 1990년대부터 있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01년도부터 의예과 2학년 학생들에게 의학개론 시간에 <영화와 의학>, <문학과 의학>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선택수업으로서 ‘문학과 의학’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의학교육의 추세는 좀 더 일찍이 임상현장에 학생들을 노출시켜,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의사로서의 생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성찰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아직 의예과 학생들까지 병원이나 개원가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려대학교에서는 대안으로서 <영화와 의학>, <문학과 의학>, <의사와 사회>, <진로설계> 라는 주제를 정하고 영화, 문학작품, 인물평전, 초청강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의사가 되는 과정(doctoring)에 대하여 좀 더 어린 시기에 조망해보도록 2001년 교과과정을 개편하였다.

이 과정의 목적은 의예과 학생들에게 영화나 문학작품을 통해 의학이 응용과학일 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과 직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12주에 걸친 <의학개론> 수업 중에서 <영화와 의학>, <문학과 의학>은 6주 동안에 걸쳐 조별토의와 발표 그리고 패널 토의로 진행하였다(이영미, 2002).

영화나 비디오 클립을 이용하여 의학의 정신심리학적 측면을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cinemeducation’이라고 부르며, 최근 연구결과들은 이 방법이 혁신적인면서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보고하고 있다(Alexander, 2002).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이나 요소를 섬세히 묘사하고 인간관계의 다양성, 사회현상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문학작품이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영화매체라고 생각되어 이 수업에서는 영화도 포함을 시켰다.

학생들을 6~7명의 소조로 편성하였고 조원 중 한 명 이상이 발표를 하고, 토론 시간에는 조의 모든 학생들이 나와 패널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였다.

먼저, ‘문학과 의학’에 대한 초청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문학과 의학, 의학과 문학에 대하여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 시간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영화, 문학에 대하여 조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매 수업시간이 끝나면 강의 소감을 받아 다음 수업시간에 되먹임으로 사용하였다. 수업의 평가는 출석, 조별 발표 및 보고서, 최종 개인 보고서를 종합하여 성적을 산출하였다.

2001년과 2002년에 다루어졌던 영화는 ‘패치아담스’, ‘로렌조오일’, ‘닥터’ 등이었다. 문학 작품은 에릴 시걸의 ‘닥터스’, 에이 제이 크로닌의 ‘성체’,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등이다.

매 수업시간 종료 시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느낀 점이나 배울 수 있었던 점을 기술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영화와 문학 속에 나타난 바람직한 의사상 또는 부정적인 의료인의 모습을 통하여 의료인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서술하였다. 의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예비 의료인으로서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사회의 책무를 다하는 의료인이 되어 일반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향후 의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영화와 문학작품을 통하여 실제 의료 및 의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음을 밝혔고 일부 학생은 ‘의대에서 와서 처음으로 정말 의사가 되는 길에 있음’을 인지하는 기회였다고 기술하였다. 기술하였다.

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의사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의료과실, 낙태, 안락사 등의 윤리적 문제를 토론하면서 올바른 직업관과 윤리의식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질병과 이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높아졌으며 바람직한 환자-의사 관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 환자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각도로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였다. 영화와 문학

작품을 의료와 연관지어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인문, 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기술하였다.

의료와 관련된 것 이외에 강의에서 좋았던 점으로는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동료들을 지식과 생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동료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토론 수업의 장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수업을 학생 중심의 바람직한 대학 수업의 형태였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영화는 접하기 쉽고 흥미롭지만 영화라는 매체가 지니는 상업성에 따라 의료계의 현실이 왜곡된 것은 아닌지 지적한 반면, 문학작품은 인간의 내면세계와 현상을 보다 깊고 세밀하게 묘사하여 깊은 사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영화보다 더 장점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교육과정의 사례는 6주간의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수업방식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수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더 치밀하고 입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개 과목에서 시행된 것이므로 학생들이 이 시간에 느끼고 배웠던 점들이 향후 의학과 교육 내지는 의사생활에 연장되어 환자 진료에 있어 의사-환자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교육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성과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가치관과 도덕성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은 교육 여건과 방법에 따라 향상될 수 있음을 경험할 수는 계기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경험과 영향이 의과대학 졸업 이후인 실제 의사 생활에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학 교육 전반에 걸쳐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교수 방법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효율성 검토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결 론

의학도나 의사들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학작품은 의사와 의료행위를 직접적 주제로 하거나 의료종사자 및 환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살펴본다면 의사는 生老病死의 四苦와 喜怒哀樂愛惡慾이라는 七情과 같은 인생의 사상과 감정의 모든 과정에 관계하고 있다. 즉, 의학과 문학이 다루는 주제의 넓고 깊음은 서로 다를 바 없으며 최근의 의학과 문학과 밀접한 관계모색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속의 의학’은 의사에게 환자 개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그리고 의사 자신에게는 환자와 사회가 원하는 의사의 모습과 자신의 한계와 균형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자기인식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문학은 직접 경험하지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의과 대학 교육 과정이후에도 지속되어 의료, 과학, 기술의 한계를 넘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와 전문적인 직업인인 의사로서 자기 긍정과 발전에 끊임없는 자극과 희망을 제공하리라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학도들이 미래에 의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영위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학교육의 역할 중에 하나라면 ‘문학과 의학’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영미(2002). 영화와 문학작품 속에서 의예과 학생들이 찾아낸 것은. 대한의사협회. 제30차 종합학술대회 문학제 초록집.
- Alexander M(2002). The doctor: a seminal video for cinemeducation. *Fam Med*, 34, 92-4.
- Calman KC(1997). Literature in the education of the doctor. *Lancet*, 350, 1622-4.
- Charon R, et al(1995). Literature and Medicine:

문학은 의학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contributions to clinical practice. *Ann Int Med*, 122, 599-606.
- Charon R(2000). Reading, wrting, and doctoring; literature and medicine. *Am J Med Sci*, 319, 285-291.
- Charon R(2000). Literature and Medicine; Origin and Destinies. *Aca Med*, 75, 23-27.
- Downie RS, Hendry RA, Macnaughton RJ, Smith BH(1997). Humanizing medicine: a special study module. *Med Edu*, 31, 276-80.
- Hampshire A, Avery A(2001). What can students learn from studying medicine in literature? *Med Edu*, 35, 687-90.
- Lancaster T, Hart R, Gardner S(2002). Literature and medicine: evaluating a special study module using the norminal group technique. *Med Edu*, 36, 1071-76.
- Nicholas B, Grant G(1997). Doctor's stories, patients' stories; a narrative approach to teaching medical ethics. *J Med Ethics*, 23, 295-99.(김옥주, 2002, 제 30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문학제 초록집, 재인용)
- Passow ES(2002). Using medical humanites in bioethics education; rationale and practice.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thics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Feburary*, p27. (김옥주, 2002, 제 30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문학제 초록집, 재인용)
- Sweeny B(1998). The place of the humanities in the education of a doctor. *Br J Gen Pract*, 48, 998-1102.
- Shapiro J(2001). Ony Connect: M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medicine. *Fam Med*, 33(50), 349-351.